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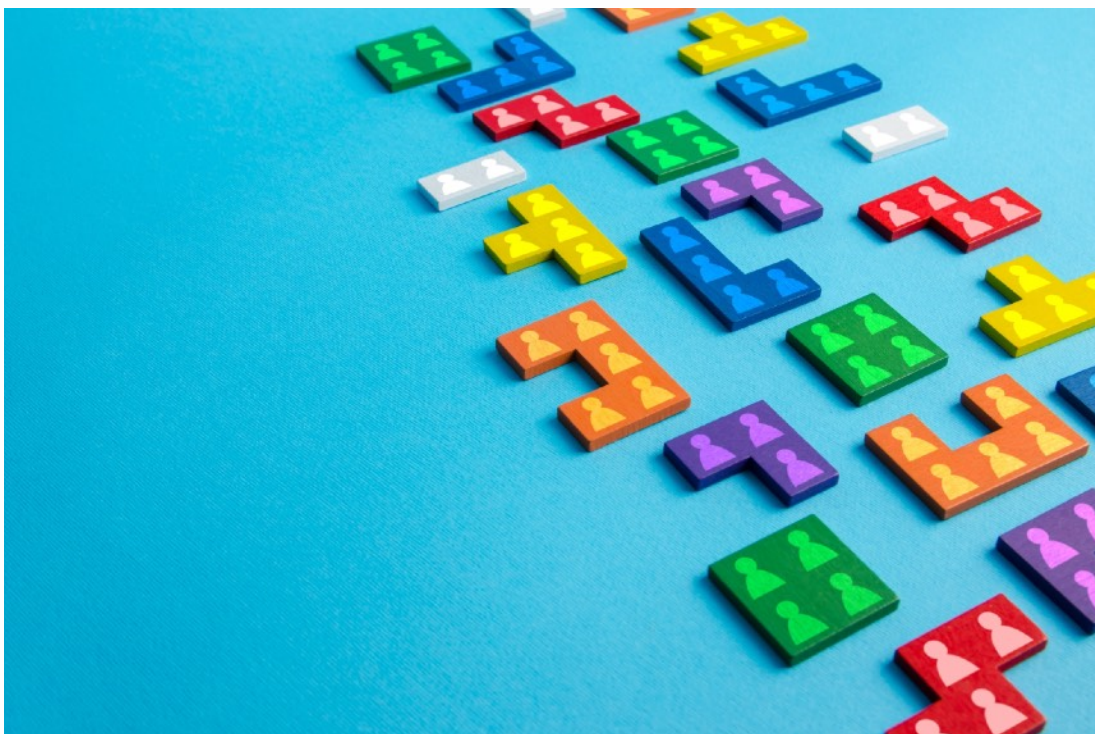
### 1.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

청년세대와 60대(교회장로 연령), 서로 “세대 차이 느낀다” 80% 이상!

###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2022년 세계 행복지수 : “한국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

2) 주일학교 교사/교역자의 메타버스 인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청년세대와 60대(교회장으로 연령), 서로 “세대 차이 느낀다” 80% 이상!

많은 국민들이 ‘갈등해소’, ‘사회통합’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음을 이미 넘버즈 135호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별히 앞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불거진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화두임이 분명하다.

이번 <넘버즈 137호>에서는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의 간극, 청년 세대와 50~60대 기성세대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모아보았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갈등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갈등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실제 각 세대의 인식 및 차이는 어떠한지 또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가정과 교회 내에서도 너와 나, 2030 청년층과 기성세대로 나누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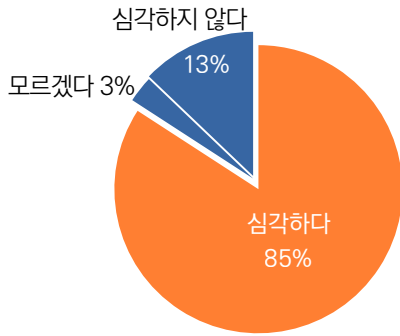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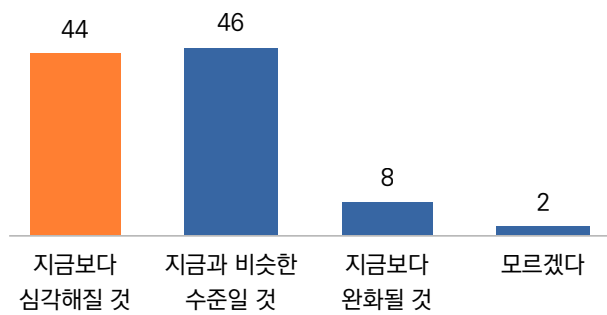
## 우리 국민, 앞으로 세대 갈등 더 심각해질 것이다 85%

- ▶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85%)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매우+약간)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44%)이 '완화될 것'(8%)이라는 인식보다 훨씬 높아, 세대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림]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그림] 향후 세대갈등 전망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제119-3호 '사회지표:세대 갈등 인식', 2021.03.03(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2021.02.19.-02.22, 웹조사)

\*\*4점 척도 질문임(매우+약간 심각하다, 전하+별로 심각하지 않다)

### ◎ 세대 갈등으로 피해 보는 세대, '나이 어린 세대' 39% > '나이 많은 세대' 21%

- ▶ 세대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세대를 질문했는데, '나이가 어린 세대' 39%, '나이가 많은 세대' 21%로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높았다.
- ▶ 2030세대에서는 '나이가 어린 세대' 응답률이 타 연령대보다 훨씬 높았으며, 심지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나이가 어린 세대' 응답률이 더 높아, 기성세대도 젊은세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세대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세대 (%)

연령	나이가 어린 세대	나이가 많은 세대	둘 다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39	21	37	2	100
18~29세	<b>46</b>	10	41	2	100
30~39세	43	16	40	1	100
40~49세	37	22	37	4	100
50~59세	39	25	34	3	100
60세이상	<b>34</b>	28	35	2	100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제119-3호 '사회지표:세대 갈등 인식', 2021.03.03(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2021.02.19.-02.22, 웹조사)

# 02

## 청년세대(2030)와 60대(교회장로 연령), 서로 '세대 차이 느낀다' 80~90%대!

- ▶ 사람들은 다른 연령대에 대해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낄까? 특히 2030 청년세대와 교회 리더십 그룹인 장로 그룹(평균 65세\*\*)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 같아 관련 데이터를 소개한다.
- ▶ 각 연령대 사람들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물어보았는데 2030세대는 60대에 대해 각각 89%, 82%로 매우 높은 비율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로 60대 이상은 2030세대에 대해 각각 93%, 85%로 2030세대보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 ▶ 이런 결과는 교회에서 청년층과 장로 등의 리더십 그룹 간에 대화가 단절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표] 각 연령대에 대한 세대 차이 인식 (각 연령대별 매우+약간 느낀다 비율, 상위 3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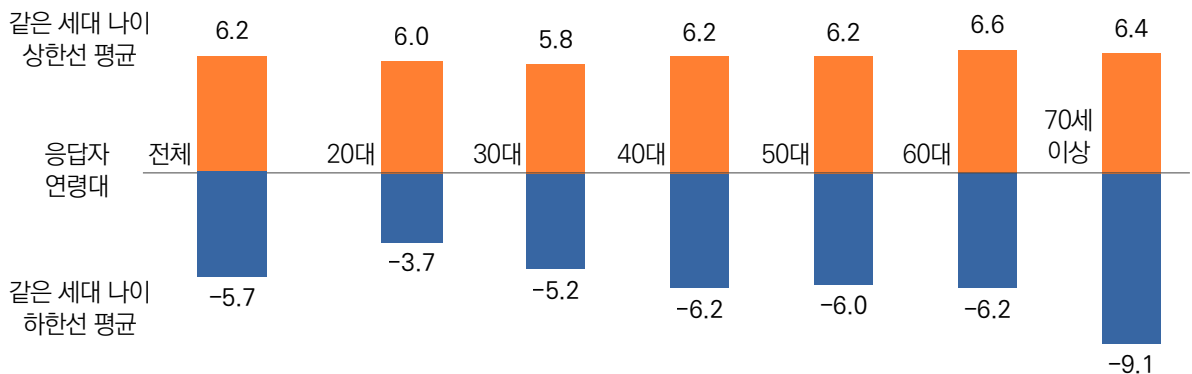
각 연령대에 세대차이 느낀다 응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응답자 연령대							
전체	87	74	53	42	36	46	61
18~29세	67	10	22	72	85	<b>89</b>	91
30대	84	71	13	27	69	<b>82</b>	88
40대	93	87	50	6	18	67	79
50대	90	90	71	32	4	20	54
60세이상	93	<b>93</b>	<b>85</b>	61	23	4	21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제128-2호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2021.02.19.-02.22, 웹조사)  
\*\*한국기독교공보 '총회 총대 4명 중 3명은 60세 이상', 2019.7.17.

### ◎ 나와 같은 세대의 범위는? 위아래 모두 6살까지!

- ▶ 나와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는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 위아래로 몇 살까지를 나와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는 지 물었다. 아래로는 평균 5.7살, 위로는 평균 6.2살로 각각 조사됐다. 즉 평균적으로 본인보다 6살 어린 사람부터 6살 많은 사람까지를 본인과 같은 세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 ▶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이 같은 세대로 인식하는 연령 차이는 채 10살도 안될 정도로 매우 좁은 범위로 국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나와 같은 세대의 나이 범위 (평균,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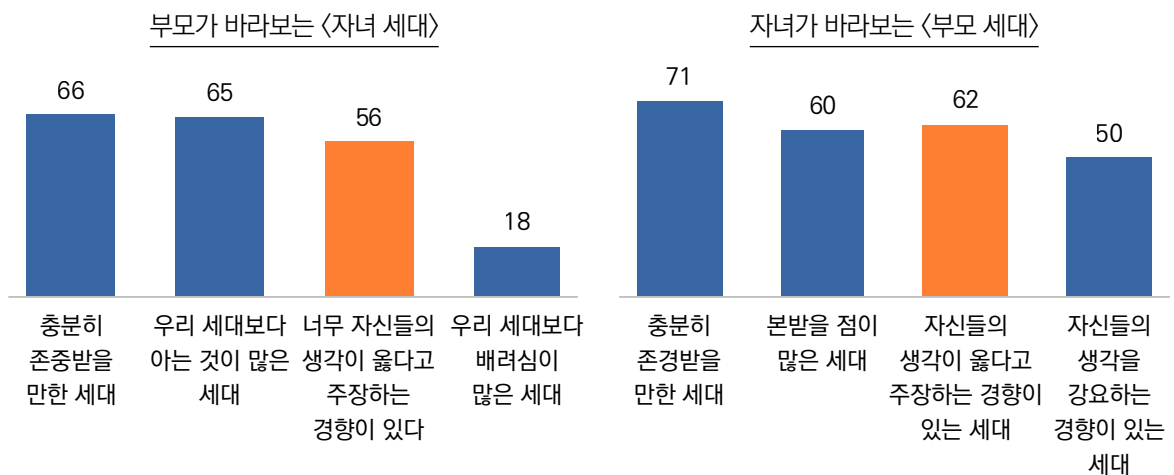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제128-2호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2021.02.19.-02.22, 웹조사)

# 03

## 부모, 자녀 세대 모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인식 서로 강해

- ▶ 이번에는 한 가정 안으로 들어가 세대 차이를 알아보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 세대>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66%), 우리보다 아는 것이 많지만(65%), 배려해주는 측면(18%)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 ▶ 반대로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 세대>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71%), 본받을 점이 많지만(60%)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며(62%), 생각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50%)고 인식하였다.
- ▶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인식이 높은 점이 특징적이었다.(부모 56%, 자녀 62%)

[그림] 부모와 자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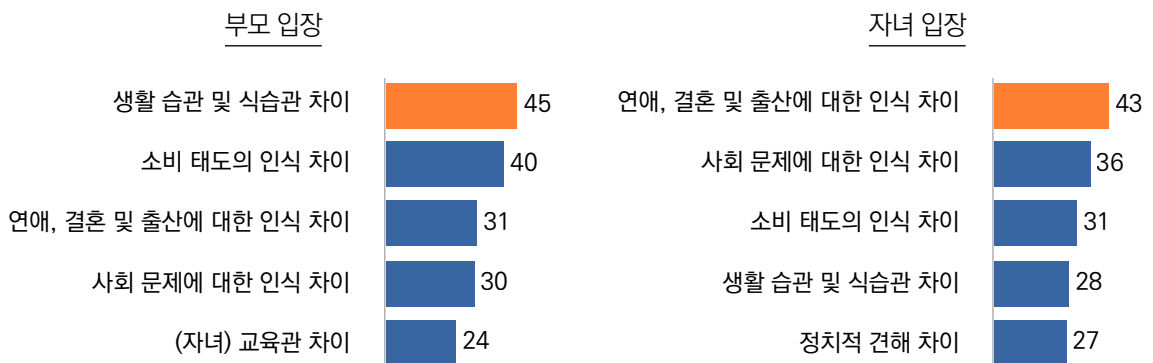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리포트, 2021 가족의 의미 및 세대간 인식 차이 관련 조사, 2022.01.07(전국 만 13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2021.11.16.~11.22, 온라인조사)

### ◎ 가정에서 세대 갈등이 발생하는 분야, 부모는 '생활습관' 차이를, 자녀는 '연애, 결혼, 출산' 인식 차이를 각각 1위로 꼽아

- ▶ 세대 갈등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문했을 때, 부모는 '생활 습관 및 식습관 차이'(45%)를 1위로 꼽은 반면, 자녀는 '연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 (43%)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그림] 세대 갈등 발생 분야(상위 5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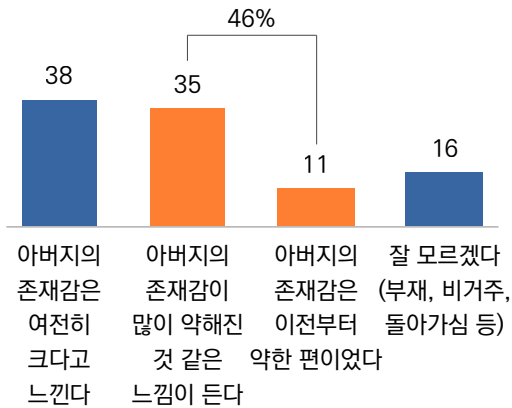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리포트, 2021 가족의 의미 및 세대간 인식 차이 관련 조사, 2022.01.07(전국 만 13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2021.11.16.~11.22,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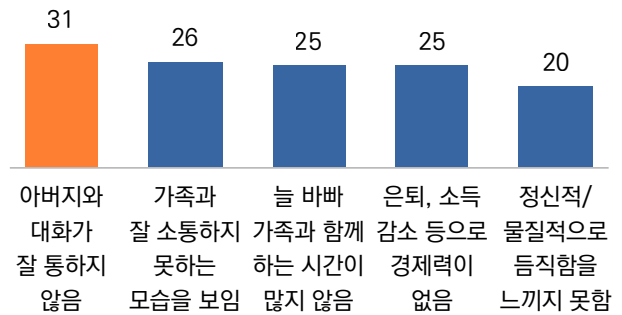
## ◎ 가정 내 아버지의 존재감 약화... 그 이유는 '대화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 ▶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가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평소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여전히 크다고 느낀다'(38%)보다 '약하다'(46%)는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
- ▶ 아버지의 존재감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대화과 소통의 문제'가 컸다.(46%)
- ▶ 즉 아버지와 자녀와의 세대인식 차이로 인한 대화/소통 부족이 가정 내 아버지의 존재감 약화로 나타났다.

[그림] 가정 내 아버지의 존재감 (%)



[그림] 아버지의 존재감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상위 5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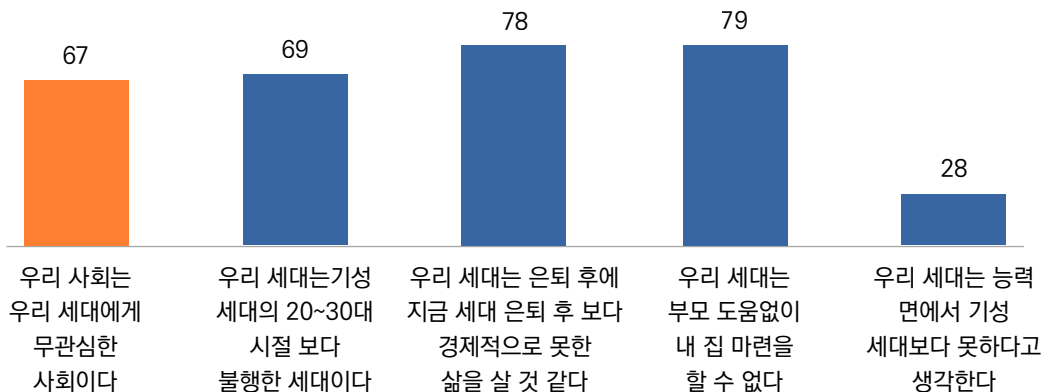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리포트, 2021 가족의 의미 및 세대간 인식 차이 관련 조사, 2022.01.07(전국 만 13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2021.11.16~11.22, 온라인조사)

# 04

## 기독교 청년, '우리사회는 우리세대에 무관심하다' 67%!

- ▶ 기독교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비교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기성세대의 20~30대 시절보다 자신들이 불행한 세대라는 인식이 컸고, 앞으로 자신들이 은퇴 후 현재의 기성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성세대보다 결코 능력면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 전체적으로 기독교 청년들은 우리사회에 대해 '청년세대에 무관심한 사회'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림] 청년 세대에 대한 현실 인식 (동의율, %)



\*자료 출처: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청년의 사회 및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보고서', 2021.01. (전국 만19~3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4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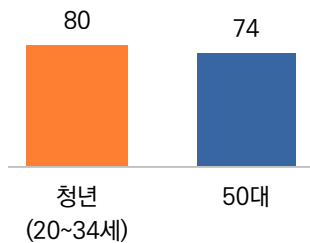
## ◎ 청년 절반 이상(57%)

### ‘586세대(부모세대)는 젊은 세대와 비교해 많은 것 누리고 있다!’

- ▶ 작년 KBS ‘시사기획 창’이 청년(20~34세)과 그들의 부모세대인 50대 두 세대만을 비교하여 ‘세대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 두 집단의 인식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 ▶ 청년들에게 586세대(부모세대) 관련 인식을 물어보았는데, ‘586 세대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답한 비율이 청년 80%, 50대 74%였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세대를 향하여 기득권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0대들도 스스로를 ‘기득권’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 ‘586세대는 젊은 세대와 비교해 노력한 것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의견에는 50대의 경우 3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청년들은 ‘그렇다’가 절반을 훌쩍 넘는 비율(57%)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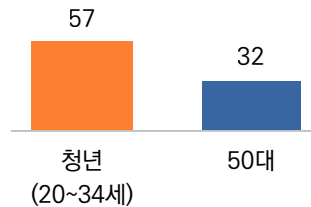
[그림] 586세대 관련 인식 (‘그렇다’ 비율)

‘586세대는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다’



‘586세대는 젊은 세대와 비교해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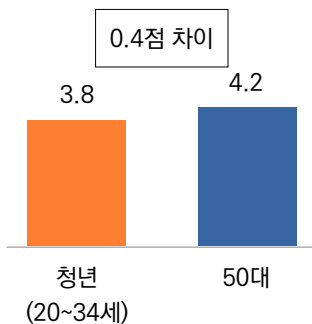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한국리서치,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 2021.06.22(전국 만 20세~34세, 50~59세 남녀 각 600명, 2021.05.10.~5.13, 온라인조사)

\*\* 4점척도임. (매우+약간)

## ◎ 50대는 끈대? 나와 다른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는 성향 높아!

- ▶ ‘끈대 지수’라고도 불리는 ‘도덕적 확신 지수’를 5점 만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청년 3.8점, 50대 4.2점으로 0.4점의 차이를 보였다. ‘도덕적 확신 지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됐다.
- ▶ 이는 50대가 청년들에 비해 세상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나와 다른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는 성향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도덕적 확신 지수(=끈대 지수) (5점 만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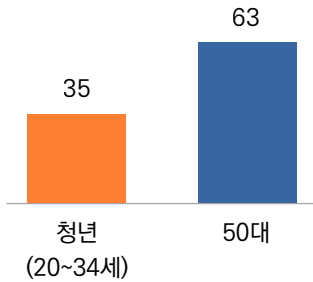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한국리서치,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 2021.06.22(전국 만 20세~34세, 50~59세 남녀 각 600명, 2021.05.10.~5.13, 온라인조사)

## ◎ 청년, 장년층과 사회문제 합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 ▶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끈대라고 부르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과 50대는 합의 가능성은 어떠할까? '청년층과 장년층이 사회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 즉, '합의가 어렵지 않다'고 본 비율은 청년(20~34세)과 50대(50~59세) 간 차이를 보였다.
- ▶ 50대는 두 세대의 합의를 긍정적(63%)으로 보았으나 청년층은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35%에 그쳤다. 두 세대 간 사회문제 합의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1.8배에 달했다. 즉 청년들은 50대를 상대적으로 더 불신하고 있었다.

[그림] 청년과 50대 간 사회문제 합의('어렵지 않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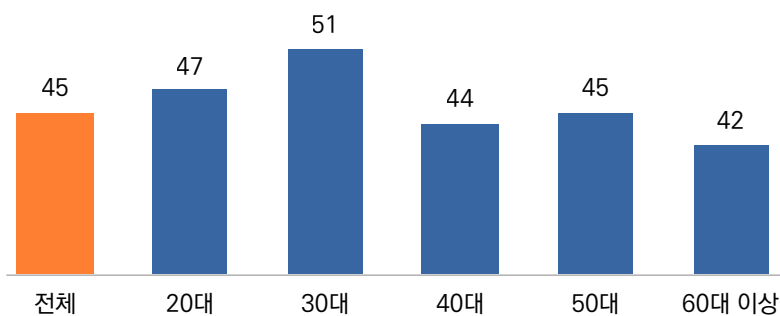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한국리서치,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 2021.06.22(전국 만 20세~34세, 50~59세 남녀 각 600명, 2021.05.10.~5.13, 온라인조사)  
 \*\*4점 척도 질문임 (전혀+별로)

## ◎ 공정성 인식, 청년 세대가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더 높아!

- ▶ 언론에서는 MZ세대를 공정세대라 일컫는다. 기성세대보다 이들이 더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말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2030세대는 전체 평균(45%)보다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 기성세대는 불공정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 ('공정하지 않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03.15.(2021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0명, 2021.09.01.~10.31, 일대일개별 면접조사/자기기입식 조사)  
 \*\*4점 척도 질문임 (전혀+별로 공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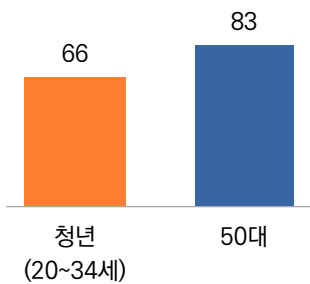
## ◎ 그러나 청년층은 공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아

- ▶ 공정을 사회 차원이 아닌 자신의 문제로 들여올 경우, 청년들의 인식이 미세하게 변한다. 청년층과 그들의 부모세대에게 동일하게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에 '그렇다'는 응답이 50대가 83%로 나타나, 청년 66%보다 오히려 공정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또, '철저히 능력과 공과에 따라 직장 봉급이 결정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50대(63%)와 비교해 20대(58%)는 5%p 낮게 답했다.
- ▶ 즉 청년세대는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실제 공정에 상대적으로 덜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공정성 관련 인식('동의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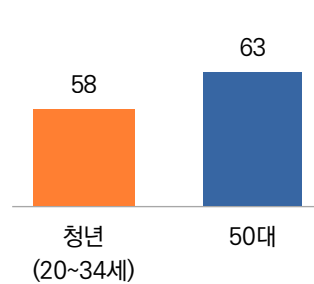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직장 봉급은 철저히

능력과 공과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



\*자료 출처 : KBS/한국리서치,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 2021.06.22(전국 만 20세~34세, 50~59세 남녀 각 600명, 2021.05.10.~5.13,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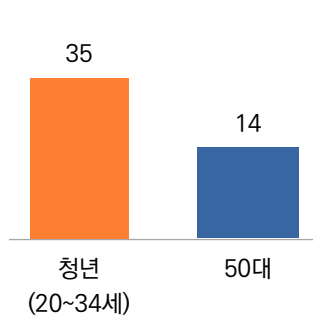
## ◎ 지금의 청년세대는 '공정세대' 보다는 '상실세대'에 가깝다!

- ▶ '암호화폐가 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년이 무려 35%로 3명 중 1명 이상이 됐다.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상실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 ▶ 다음으로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청년 5명 중 3명 이상이 '가능성이 없다'(62%)고 답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기에 경제적 계층 상승을 기대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의 청년세대이다. 그래서 그들을 공정세대 이전에 상실세대라 부르는 것이다.

[그림] 경제적 인식(각각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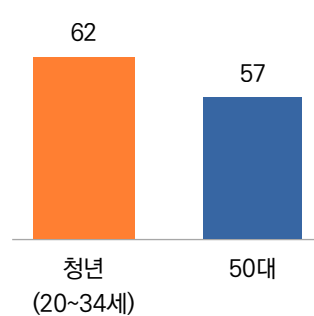
'암호화폐가 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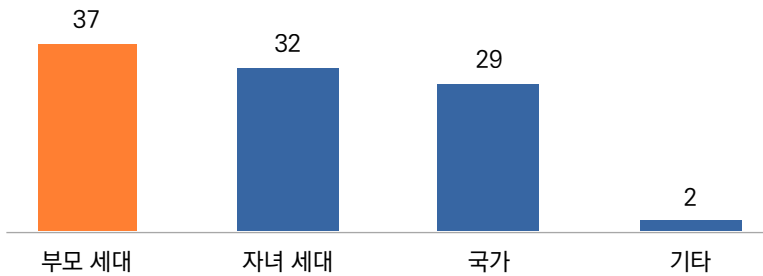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한국리서치,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 2021.06.22(전국 만 20세~34세, 50~59세 남녀 각 600명, 2021.05.10.~5.13, 온라인조사)

# 05

## 세대 갈등의 책임, 그래도 부모세대가 더 책임감 느껴야

- ▶ 그렇다면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부모 세대' 37%, '자녀 세대' 32%, '국가' 29%로 세 그룹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세대가 가장 높게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세대 갈등 책임 소재가 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세대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이터로 읽혀진다.

[그림]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의 책임 소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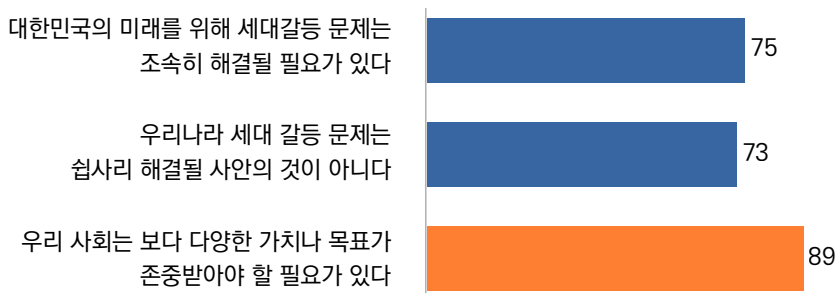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리포트, 2021 가족의 의미 및 세대간 인식 차이 관련 조사, 2022.01.07(전국 만 13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2021.11.16.~11.22. 온라인조사)

### ◎ 한국사회, '다양한 가치나 목표가 존중받아야' 89%!

- ▶ 우리 국민은 미래를 위해 세대갈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75%)하면서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73%)는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와 관련 '우리 사회는 보다 다양한 가치나 목표가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에 국민의 89%가 답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과 기성세대가 마음을 연 소통을 통해 다양성과 서로에 대한 배려, 목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향후 한국 사회 발전 가능성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리포트, 2021 가족의 의미 및 세대간 인식 차이 관련 조사, 2022.01.07(전국 만 13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2021.11.16.~11.22. 온라인조사)

\*\*4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한 세대는 대충 몇 년쯤 될까? 예전에는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정도를 잡았다. 여성이 성장하여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까지의 기간을 한 세대로 구분한 것이다.<sup>1)</sup> 2007년 미국의 가족 세대 기간은 25.2년, 2004년 영국의 경우는 27.4년 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8년 조사에서 가족 세대 기간은 30년이었던다.

그런데 요즘도 30년을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30년 세대 구분이 생물학적이고 인구학적 개념이라면 요즘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세대로 구분한다. 동시대에 태어나 같은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서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집단을 한 세대로 보는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한 세대가 채 10년이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4쪽)

우리 사회에서 세대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눈을 뜨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시대에 그 기술을 빠르게 접하고 익힌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는 확연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화라는 사회적 대의에 집중하여 헌신한 세대와 취업난에 시달려 자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세대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드릴 때는 정장을 입고 성경을 옆에 끼고 있어야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세대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스마트폰만 갖고 성경을 찾아 보는 세대 사이에는 큰 벽이 자리하고 있다. 주일예배는 꼭 시간 맞춰 드려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세대의 눈에는 그날 기분이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를 쉽게 빠지는 세대가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세대 차이는 다른 세대에 대해 이질감을 갖게 한다. 이질감이 자기 확신과 결합하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5쪽), 이런 강한 자기 확신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갈등이 지나치면 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들딱총'(들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라는 뜻으로 노인을 혐오할 때 쓰는 말), '연금총'(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같은 혐오 말을 쓴다든지,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짜증을 낸다든지 하는 것이 차별과 혐오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존을 깨뜨리는 차별과 혐오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대 갈등은 어떻게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을까? '다름'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이므로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내 맘의 공간이 열린다. 생각,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등이 다양해진 사회에는 그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있어야 서로가 공존할 수 있다.(10쪽) 다원주의적 사고가 없다면 그 사회는 갈등으로 점철되어 사회적 안녕은 깨지고 말 수밖에 없다.

갈등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은 양보와 배려 그리고 인정이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 2:3)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자기 절제와 양보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번 보고서는 세대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세대가 장년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교회에서 장년 세대가 청년 세대에 대해 좀 더 자기 절제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리더십 그룹과 청년들 간에는 넘을 수 없는 세대 인식 차이가 크다.(4p) 서로 90% 안팎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서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0대 장로와 2030 청년 세대를 잇는 중간 연령대별로 촘촘히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30대 리더십, 40대 리더십, 50대 리더들이 권한을 갖고 그 아래세대, 윗세대와 소통한다면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Oneness)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 위키백과, '세대'(<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B%8C%80>)

1.[2022년 세계 행복지수]

: “한국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

2.[주일학교 교사/교역자의 메타버스 인식]



## 한국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

-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최근 공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46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59위 였다.
- ▶ 행복지수는 나라별로 1,000명의 시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묻은 갤럽의 월드 폴(world poll)을 바탕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 삶의 선택 자유, 관용, 부정부패 6가지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다.
- ▶ 올해 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였고,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3위) 등 1-3위가 모두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미국은 16위였으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이 26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54위, 중국은 72위에 올랐다.
- ▶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146위)는 '아프가니스탄'이었고, 남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중동의 '레바논'이 각각 144위, 145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그림] 세계 vs OECD 행복지수 (2019~2021)

세계 행복지수 순위 (146개국)			OECD 행복지수 순위(38개국)**		
<상위 10위>	<주요국가>	<하위 10위>			
1.핀란드	16.미국	137.잠비아	1.핀란드	14.독일	27.에스토니아
2.덴마크	26.대만	138.말라위	2.덴마크	15.캐나다	28.라트비아
3.아이슬란드	54.일본	139.탄자니아	3.아이슬란드	16.미국	29.칠레
4.스위스	59.한국	140.시에라리온	4.스위스	17.영국	30.멕시코
5.네덜란드	72.중국	141.레소토	5.네덜란드	18.체코	31.폴란드
6.룩셈부르크		142.보츠와나	6.룩셈부르크	19.벨기에	32.헝가리
7.스웨덴		143.르완다	7.스웨덴	20.프랑스	33.일본
8.노르웨이		144.짐바브웨	8.노르웨이	21.슬로베니아	34.포르투갈
9.이스라엘		145.레바논	9.이스라엘	22.코스타리카	35.그리스
10.뉴질랜드		146.아프가니스탄	10.뉴질랜드	23.스페인	36.한국
			11.오스트리아	24.이탈리아	37.콜롬비아
			12.호주	25.리투아니아	38.터키
			13.아일랜드	26.슬로바키아	

\*자료 출처 :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2022 세계 행복보고서', 2022.03.18.(146개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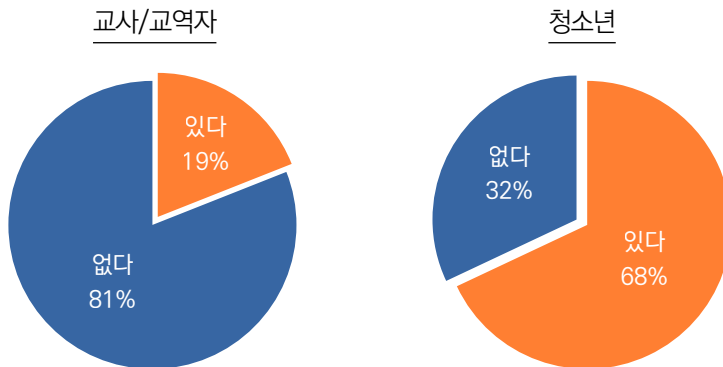
\*\*총 146개국 중 OECD 국가(38개국)의 순위를 기재함.



## 주일학교 교사/교역자의 ‘메타버스 행사 참여 경험’ 19%!

- ▶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소장 고상범목사)가 연구소 소속 전국 110명의 주일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이 메타버스 행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가’에 19% 정도가 ‘있다’고 답했다.
- ▶ 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3배 이상 높은 비율(68%)로 ‘메타버스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교역자와 학생들 간에 간극을 보여줬다.

[그림] 메타버스 행사 ‘참여 경험’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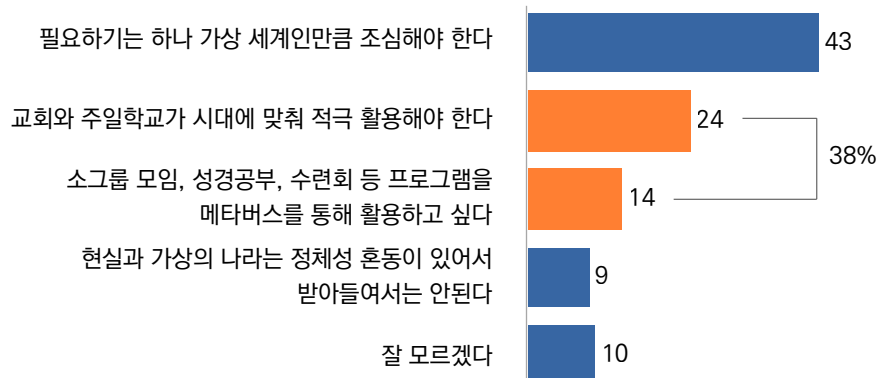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교회학교 교사 및 교역자들의 메타버스 인식조사, 2022.03.08. (연구소 소속 전국 110명 주일학교 교사 및 교역자, 2022.01.28.~02.06.)

\*\*넘버즈 127호 15p. 참조 (스마트학생복, 청소년의 메타버스 이용현황 및 인식조사, 2021.09.23. 10대 청소년 710명, 2021.09.01.~14)

## ◎ 주일학교 교사/교역자의 3명 중 1명 이상(38%), 메타버스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 ▶ ‘메타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3%가 ‘필요하기는 하나 가상 세계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 반면에 3명 중 1명 이상(38%)은 메타버스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교회와 주일학교가 시대에 맞춰 적극 활용해야 한다’ 24%, ‘소그룹 모임, 성경공부, 수련회 등 프로그램에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싶다 14%였다.

[그림] 교회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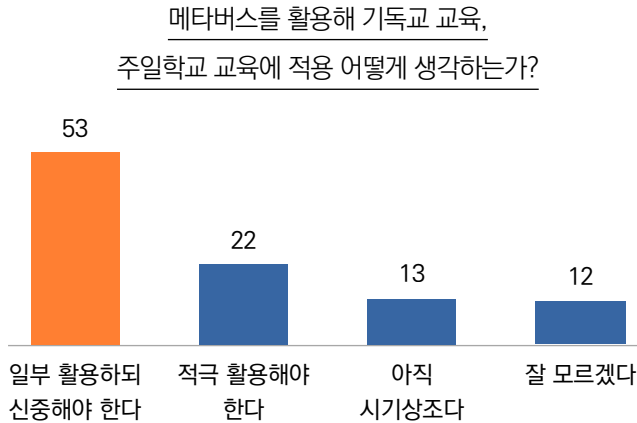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교회학교 교사 및 교역자들의 메타버스인식 설문조사, 2022.03.08. (연구소 소속 전국 110명 주일학교 교사 및 교역자, 2022.01.28.~02.06.)

## ◎ 메타버스의 주일학교 교육 활용, ‘아직은 신중하게’ 53%

- ▶ 메타버스를 주일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일부 활용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아직까지는 지배적(53%)인 것으로 나타났다.
- ▶ 반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꼴(22%)이었다.

[그림] 메타버스의 ‘주일학교 교육 적용’ 관련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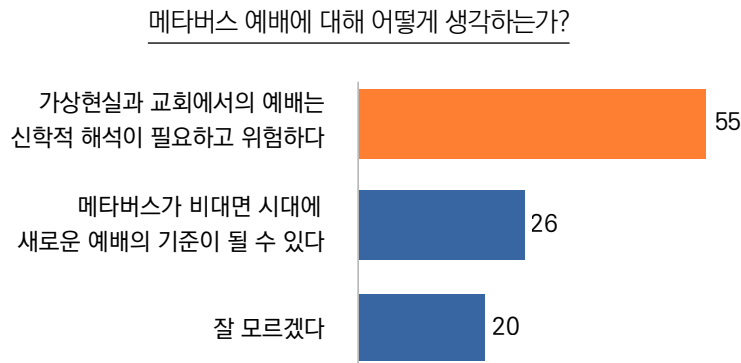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교회학교 교사 및 교역자들의 메타버스인식 설문조사, 2022.03.08.,(연구소 소속 전국 110명 주일학교 교사 및 교역자, 2022.01.28.~02.06.)

## ◎ 메타버스 예배, 교사/교역자의 절반 이상 ‘신학적 해석 필요하고 위험해!’

- ▶ 메타버스 예배에 대해서는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고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 ▶ 반면, ‘메타버스가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꼴(26%)이었다.

[그림] 메타버스 ‘예배’ 관련 인식 (%)



\*자료 출처 :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교회학교 교사 및 교역자들의 메타버스인식 설문조사, 2022.03.08.,(연구소 소속 전국 110명 주일학교 교사 및 교역자, 2022.01.28.~02.0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88호\(2022년 3월 4주\) -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전망 등](#)

[尹당선인 '잘할 것' 55%...역대 같은시기 80% 안팎](#)

연합뉴스\_2022.03.25.

◎ 사회 일반

[교육·상담·수리·행정·방역 다해, 교사 절반 “휴직 고려”](#)

중앙일보\_2022.03.26.

[스마트폰 이용자 24% 과의존위험군...코로나로 외부활동 줄어](#)

연합뉴스\_2022.03.24.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 처벌 강화해도 60% 증가](#)

한겨레\_2022.03.24.

[직장인 조사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한국갤럽\_2021.04.07.

[직장인 42.3% “SI에 일자리 위기 느껴”](#)

뉴시스\_2022.03.28.

[암 예방, 앞보다 실천!... 암 3분의 1 미리 막을 수 있다](#)

국민일보\_2022.03.22.

[방역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도 필요해... 거세지는 일상 회복 욕구](#)

MADTIMES\_2022.03.25.

[코로나로 유학연수 방한 외국인도 급감...2년새 37만→8만명](#)

연합뉴스\_2022.03.28.

[한국인, 일생 중 34년을 인터넷 사용에 쓴다...아시아 1위](#)

연합뉴스\_2022.03.29.

◎ 경제

['억'소리 나는 대기업 연봉...근로자 평균의 4배 올랐다](#)

한경경제\_2022.03.22.

[자영업자, 코로나 이전 文정부 시작부터 무너졌다](#)

조선일보\_2022.03.23.

[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사상 최대'](#)

조선일보\_2022.03.25.

[코로나 장기화·저금리에 2020년 직장인 빚 10% 넘게 늘었다](#)

연합뉴스\_2022.03.2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청소년 / 청년

['이대남' 용어에 71%가 '부정적'...'성별·세대 갈등 조장'](#)

[연합뉴스\\_2022.03.23.](#)

[초중고생 10명 중 7명 지난해 사교육 받았다](#)

[국민일보\\_2022.03.25.](#)

[국내 청소년 한달에 10번 체육활동...한번에 평균 1시간 반 운동](#)

[매일경제\\_2022.03.24.](#)

◎ 기독교 / 종교

[국내 4대 트렌드 서적으로 내다본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국민일보\\_2022.02.28.](#)

[복음주의자들 지지를 높지는 않으나 미국인들 LGBTQ 지지는 높다](#)

[크리스천타임스\\_2022.03.23.](#)

◎ 이슈큐레이션

[전염병 그리고 전쟁, 100년만에 동시타격...가난한 시간이 온다](#)

[조선일보\\_2022.03.24.](#)

◎ 기획기사 : [목회자이중직 문제, 이제는 직시할 때] 기독교신문

[1. 신음하는 목회자, 시들어가는 교회 \\_2022.02.21.](#)

[2. 이중직 그 이름에 담긴 뜻 \\_2022.02.24.](#)

[3. 해결해야 할 신학적 쟁점 \\_2022.03.07.](#)

[4. 두 사모 이야기 \\_2022.03.09.](#)

[5. 우리는 이렇게 대비했다 \\_2022.03.21.](#)

[6. 사회적 목회 차원에서 본 목사의 직업 \\_2022.03.27.](#)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성,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민,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신규 후원 |

최향재, 무명(3월선교비)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mailto: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 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